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고

- 이제 친환경개발에 집중해야 -



김 태 철
충남대학교 교수

2006년 3월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측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해 1월 서울행정법원 제3부의 간척지 용도특정과 개발범위를 검토하고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에 대하여 한국 농공학회에서는 즉각 철회 성명을 낸 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미래를 위해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1989년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90년대 중반부터 환경운동과 시화호 오염사태를 계기로 대표적인 국민적 갈등사례가 되어 왔다. 1999년부터 민관공동조사단 운영으로 2년간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후 어렵게 사업재개가 결정되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와 법원소송으로 다시 중단되었다.

새만금은 갯벌보전이나, 경지전환이나 정책적 선택의 문제이지 결코 삼보 일배, 백일 단식과 같은 생명의 문제도 아니요, 갯벌보전은 선이요, 경지전환은 악이라는 윤리의 문제도 아니다. 지금 낙지와 바지락이 살아가는 갯벌은 사라질 것이지만, 훗날 일부 갯벌은 생기고, 담수호에는 물고기와 철새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논두렁에는 벼와 메뚜기가 있는 또 다른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새로운 땅에서 150만 명이 1년간 먹을 식량을 생산해낼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낙지와 바지락이나 벼와 메뚜기이나를 놓고 국민 복지 차원에서 사업 계속을 선택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사회적 갈등을 일단락 짓고 경제·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국익과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달성한 계획도, 삽교호, 대호, 아산호 등 수 많은 간척사업의 성공사례로부터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예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만금사업은 갈등의 굴레를 벗어나 새 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개발모델로 거듭나야 한다. 새만금사업이 식량안보와 더불어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이러한 목적을 원칙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토지이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2만8천300 ha의 우량농지와 1만1천800 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연간 14만 톤의 식량 생산과 10억 톤의 수자원 확보로 다가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국민 생활의 보편적 안정에 기여함을 목표로 추진해온 사업이므로 시대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방조제 33 km 는 우리나라 토목기술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대역사이다.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담수호의 수질오염 우려에서 야기된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기 수립된 수질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신을 씻어내야 할 것이다. 한편 그 동안 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제기된 생태 보전과 환경논의를 대폭 수용해 친환경적 개발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방조제가 고군산군도 등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진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조제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개발 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위주로 국민적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가 기여해야할 부분도 적지 않다.

더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방조제 끝막이 공사 2.7 km 구간은 하루 72억톤의 바닷물이 초속 5~6 m, 완

공직전에는 7 m 이상으로 드나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공사이므로 성공적인 끝막이 공사에 모든 관심과 노력이 동원돼야 한다.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역경과 갈등을 뛰어넘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고 국익과 지역발전 차원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새 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한 새만금 사업을 설정하고, 이것을 이념적으로 구현할 구체적인 사업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며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 사업 마무리도 꿈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